

한국신화와 만족신화의 대비

徐 大 錫

I. 연구의 방향

본 발표에서는 한국 신화와 만주족의 신화를 국조신화와 무속신화 및 영웅신화로 나누어 청의 국조신화로 알려진 〈布庫里雍順 神話〉와 고구려의 〈주몽신화〉를 대비하고 만주족의 대표적 神歌로 소개된 〈니산샤만〉과 한국의 무속신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 그리고 만주족의 영웅신화로 알려진 〈女眞定水〉와 한국민족의 영웅전설로 알려진 〈天池〉, 〈百日紅〉, 〈三台星〉설화를 대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지금까지 문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원형 상징론적 신화 연구와는 달리 신화 전승집단의 역사적 성격과 신화의 내용을 관련시켜 검토함으로써 한국 신화의 특징과 계보를 밝히려는 민족 신화학적 관점에서 시도되는 연구이다. 원형상징적 연구가 인류의 보편성을 밝히는 연구라면 민족신화학적 연구는 민족신화의 특수성을 밝혀 민족의 원류나 민족 문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과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민족의 신화와 만족 신화의 대비 검토는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주족은 백두산과 흑룡강 일대를 삶의 근거지로 삼고 한민족

* 서울대학교 인문대

과 누천년간의 접촉을 지속한 민족이다. 그리하여 고구려, 발해의 시기에는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 동참하기도 하였고 금과 청을 세워 중원을 석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족은 살만교라는 고유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민족의 고유신앙인 무속과 매우 닮은 점이 많은 종교로서 샤먼들이 전승하는 신화의 대비 검토는 두 민족신화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고 본다. 본 발표에서는 두 민족의 대표적 신화를 대비함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도 다른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음을 미리 말해둔다. 특히 국가를 창건한 시조의 혈통을 따져 신화 전승 집단이 지향하는 신성성을 導出하여 대비하고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등을 포함하는 세계인식의 대비를 통하여 한국인과 만주족의 세계관의 차별성을 추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Ⅱ. 국조 신화의 대비

만주족의 국조신화는 청태조의 족조 신화로서 〈天鵝仙女〉, 〈三仙女〉, 〈布庫里雍順〉, 〈天女浴躬池〉, 〈滿洲의 本源〉등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자료로서 청대의 문헌인 「滿洲源流考」와 「東華錄」을 비롯하여 최근에 구비설화를 수집하여 간행한 「滿族民間故事選」(1981), 「滿族三老人故事集」(1984), 「滿族古神話」(1986), 「吉林省民間文學集成」(1987)등에 두루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各篇에 따라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그 내용은 천상의 선녀 삼형제가 백두산 위의 호수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들중 막내인 弗庫倫이 까치가 물어다 준 朱果를 삼키고 임신하여 천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두산에 머물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愛新覺羅 布庫里雍順’이라고 하였는데 布庫里雍順이 자라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삼성지방으로 흘러가서 삼성 부족의 싸움을 화해시키고 군장이 되어 만주국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신화는 우리의 신화중에서 특히 고구려의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전승자료를 폭넓게 검토하지 않고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점 지적에 그친 것이었다.

주몽 자료는 碑文 및 墓誌銘 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 두루 전해지는데 전체 자료는 대체로 「三國史記」 계열과 「東明王篇」 계열로 나누어 진다. 「삼국사기」 계열은 「三國遺事」와 「東國通鑑」이 있는데 주몽의 건국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고 「동명왕편」 계열은 「帝王韻記」, 「世宗實錄地理志」, 「應制詩註」등이 속하는데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과정이 상세하며 특히 유화의 역할이 돋보인다.

두 신화를 대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① 두 신화는 백두산 위에 호수를 배경으로 결연과 잉태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만주족의 신화는 시조의 활동 공간이 백두산 동쪽으로 되어 있고 주몽신화는 시조의 활동이 백두산 서쪽 지역으로 전개된다.

② 두 신화에서 시조를 낳은 국모신적 존재로 대응되는 인물은 유화와 불고륜이다. 유화와 불고륜은 세 자매가 함께 목욕을 하다가 그중 한 사람만 선택되어 임신을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화는 수신인 하백의 딸로서 수신적 존재인데 반하여 불고륜은 천상에서 하강한 존재로서 천신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유화는 청하에서 놀았고 우발수로 귀양가서 어부에게 끌려나왔다. 이처럼 물과 친연성이 강한 존재이다. 그러나 해모수와 결연하여 주몽을 잉태한 이후에는 金蛙王의 궁중에서 생활하며 물과의 접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불고륜은 하늘에서 살다가 백두산 위의 호수에서 朱果를 삼키고 잉태한 후 호수에서 살며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한 존재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한 후에 뗏목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고 비녀로 물길을 터서 아들을 띄워 보내는등 물과의 친연성이 점차 강화되는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始祖母의 성격에서 두 신화는 차이를 보인다.

③ 시조의 부친의 혈통에서도 두 신화는 차이를 보인다. 주몽의 부친은 해모수이고 해모수는 하늘의 신으로 나타난다. 문헌에 따라 해모수는 天帝, 또는 천제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신화에서 형상화된 모습은 태양신임이 분명하다. 한편 만주족의 시조 布庫里雍順의 부친은 까치가 물고 온 朱果이다. 주과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천녀인 불고륜이 주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삼킨 후 날지를 못했다는 점에서 불고륜과는 문화가 다른 집단의 존재임이 확실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청태조 전설에서 청태조 노라치의 부친은 수달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 전승되는 〈女眞族 族源傳說〉에서도 시조의 父系가 장백산 천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설정됨을 보아 水神的 존재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두 신화의 부계 혈통은 천신계와 수신계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④ 시조가 국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두 신화는 차이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주몽이 금와왕의 동부여를 탈출하여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은 이미 형성된 국가로부터 하나의 세력이 분열되어 새로운 국가로 독립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반면 布庫里雍順이 산중에서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三姓部族의 싸움을 화해시키고 貝勒으로 추대되는 모습은 처음으로 국가 사회가 탄생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삼성의 부족 사회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처음 만난 인물을 신성시하여 지도자로 추대하는 성격은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나 가야의 수로왕 신화와 상통되는 점이다.

Ⅲ. 무속신화의 대비

만주족의 구비문학 유산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자료는 〈니산샤만〉이다. 이 자료는 러시아의 만주어 교수 거루빈치쿠푸가 수집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원문은 만주문자로 필사된 것인데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이태리어, 영어등으로 번역되어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성백인 교수가 번역한 「滿洲 샤만 神歌」(1974)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니산샤만〉은 문학적 측면에서 그 장르적 성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채 〈샤만 전설〉, 〈滿文的 長篇故事〉, 〈滿族的 史詩〉, 〈說唱的 民間故事〉등으로 언급되어 왔다. 〈니산샤만〉은 만주족의 다을에서 노래로 불리는 무당의 이야기로서 구비서사시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니산이라는 신통력이 광대한 무당이 젊어서 사냥을 갔다가 죽은 서르구다이 피앙고라는 한 부잣집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열라왕이 데려간 혼령을 빼앗아오는 이야기로서 무속 신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신화라면 신성 획득의 과정과 신으로의 좌정경위 그리고 제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겠는데 〈니산샤만〉에서는 니산 무당이 죽은 사람을 回生시키는 위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혼령을 풍두성에 던져버렸다는 이유로 청태종의 징벌을 받아 우물 속에 갇히는 것으로 결말이 비극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신화적 인물의 마지막이라기 보다 전설적 인물의 최후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전하는 〈니산샤만〉을 신화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니산샤만〉이 본래 무당의 조상신화이었을 가능성은 〈니단샤만〉(女丹薩滿)을 검토하면서 밝혀낼 수 있다. 〈니단샤만〉도 만주족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무당의 이야기인데 죽은 황제의 아들을 살려내고

죽은지 너무 오래된 황제의 누이를 못 살렸다는 이유로 라마의 참소를 당해 황제에게 벌을 받아 우물 속에 갇혀 죽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니산샤만〉과 주요 서사단락이 일치하고 있다. 〈니산샤만〉과 〈니단샤만〉은 같은 유형의 이야기에 속하는 각편들로 생각되는데 〈니단샤만〉의 말미에는 〈니산샤만〉에는 없는 신성획득의 신화소가 들어 있다. 즉 니단샤만이 죽자 태양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니단의 혼령이 커다란 새로 변해 태양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황제는 弓士를 시켜 활로 새를 쏘게하여 세상은 다시 밝아졌으나 그것이 니단의 소위인 것을 알고 니단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니 그로부터 세상에서는 니단을 샤만의 조상신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니산샤만〉의 신화적 성격이 유추된다. 즉 니산도 무당의 조상신으로 제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당초에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니산샤만〉은 〈니단샤만〉과 마찬가지로 샤만의 조상신화였음이 확실해 진다. 〈니산샤만〉은 신화임을 증명하는 신성획득 부분이 탈락되어 신성성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나 샤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신화적 면모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무속신화와 대비 검토가 의의를 가진다.

〈니산샤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나라 무속신화인 〈바리공주〉및 〈차사본풀이〉와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무당이 아닌 보통의 인간으로서 지극한 정성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하는데 비하여 니산은 신통력이 광대한 무당으로서 염리왕을 제압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바리공주가 인간적 힘을 바탕으로한 영웅서사시적 인물이라면 니산은 주술적 힘을 바탕으로한 무속 서사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니산은 과부로 등장하여 저승을 다녀 오면서 남편의 혼령을 영원히 인간으로 재생할 수 없는 풍두성에 던짐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바리공주는 처녀로 저승세계를 여행하면서 약수를 관리하는 신선과 혼인하여 여러 아들을 낳아 가족과 함께 귀환하는 인물로서 결혼을 통해 여성의 多産을 실현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니산샤만〉은 늙은 부모가 젊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로서 자연적 질서에 따르는 사회 윤리를 반영하고 있고 〈바리공주〉는 어린 딸이 늙은 부모를 살리는 이야기로서 효행이라는 성현이 가르친 사회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차사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속 신화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임이라는 이승의 인물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온다는 점에서 〈니산샤만〉과 비교할만 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空間觀의 측면에서 두 신화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임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내려갈 때에는 행기뿔이라는 물 속을 통과하는데 니산은 저승을 오가며 강물을 배나 남수고를 타고 위로 건너갔지 물 속으로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차사본풀이〉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물을 경계로 수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관념을 발견할 수 있고 〈니산샤만〉에서는 물을 경계로 이승과 저승이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신화 전승집단의 세계관의 차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속신화와 만주족의 신화는 차이를 보인다. 〈바리공주〉나 〈차사본풀이〉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육체의 보존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은 지가 오래되어 살과 힘줄이 다 썩은 상태라도 약꽃과 약수로 모두 복구시킨다. 그러나 니산이나 니단은 죽은지 오래되어 살과 힘줄이 썩은 인물은 재생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혼령은 저승에서 데려올 수 있으나 이승에서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육체는 무당의 힘으로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만주족의 샤만이즘적 생사관과 우리의 무속적 생사관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영웅신화의 대비

만주족의 영웅신화는 〈女眞定水〉를 들 수 있다. 〈女眞定水〉는 完達과 女眞이라는 부부가 인간계에 재앙을 주는 흑룡, 백룡, 청룡과 싸워 용들이 가진 寶珠를 빼앗고 용을 죽이거나 활동을 못하게 강바닥에 고정시킴으로써 흑룡강의 범람과 광풍 폭우등의 악천후를 없애고 인간세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完達과 女眞이 용과 싸우는 과정에서 完達은 청룡을 죽인 뒤 지쳐서 쓰러져 完達山으로 변했고 女眞은 興凱와 牡丹이라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여 이들 자녀에 의하여 흑룡의 제치가 완결된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흑룡강 일대에서 삶을 영위했던 만족의 영웅전설이면서 신화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여성 주인공의 이름인 〈女眞〉이 종족의 명칭과 같고 남성 영웅이 죽어 산이 되었고 그 산의 이름이 남성 영웅의 이름과 일치하는 完達山이라는 점, 그리고 자녀의 이름과 같은 ‘興凱湖’와 ‘牡丹江’이 실제 동북 만주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만족의 창세신화적 성격을 띄우고 있다.

한국의 영웅설화로는 〈天池〉, 〈百日紅〉, 〈三胎星〉의 유래담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연변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서 「조선족민간고사선」(상해문예출판사, 1982), 「길림성민간문학집성」상 (1987)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전설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신화로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증이 필요하다. 이들 설화는 모두 영웅적 인물이 인세에 해독을 끼치는 악룡을 퇴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지〉에서는 백장수가 백두산의 물줄기를 불칼로 지저 말리는 흑룡을 물리치고 땅을 파서 천지를 만들고 공주와 결혼하여 천지 속에 수정궁에 살면서 천지를 지킨다고 하였다. 여기서 백장수는 천지의 수호신으로서 백두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추앙되었던 존재라고 생

각된다. 즉 천지신 제전에서 제향을 받던 신의 본풀이로서 성격을 갖추고 있다. 〈백일홍〉은 어느 바닷가(또는 강가) 촌락에서 해일을 일으키고 광풍폭우를 일으켜 주민을 괴롭히는 악룡을 제거하기 위해 한 용감한 젊은 청년이 바다 속으로 출발하고 청년을 사랑하던 한 처녀가 포구에서 청년을 기다리다가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청년의 배를 보고 청년이 죽은줄 잘못 알고 쓰러져 죽어 백일홍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은 악룡을 죽여 없애고 개선하였으나 용의 피로 돛폭이 물들어 붉게 되었고 처녀는 청년이 용에게 살해된 줄 알고 자진해버린 것이다. 이 설화도 청년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 투쟁한 인물이고 처녀의 희생은 악룡의 제거와 연결되어 있기에 처녀의 혼령은 마을을 지키는 신으로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흔히 한이 맺힌 인물의 혼령은 무속의 신으로 정립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맺힌 한이 집단의 삶을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도 신화적 성격이 강한 자료이다.

〈삼태성〉에서는 태양을 물어간 흑룡을 홀어머니의 용감한 아들 삼형제가 싸워서 물리치고 태양을 도로 찾아온 후 태양을 지키기 위해 삼태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북두칠성과 삼태성은 신성시되는 별로서 민간에서 숭앙되었다. 특히 삼태성이 된 삼형제는 태양을 지켜 인류의 삶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삼태성 暹神으로 좌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태양수호신 신화이면서 삼태성신 신화로서 신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처럼 만족의 〈女眞定水〉와 한국의 영웅신화는 모두 영웅적 인간과 악룡의 대결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웅은 악룡을 물리치고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의 삶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사회에서 추앙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그런데 한국의 영웅은 대체로 태양신과 관련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발견된다. 천지의 백장수는 태양 빛인 백색을 상징하고 있고 백일홍의 청년 영웅도 해신과 대결하여 광명

한 기후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태양신의 성격을 가지며 삼태성은 태양의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 신화는 모두 천신과 수신의 대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신이 수신을 제압하여 인류의 삶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女眞定水〉에서는 完達은 산신임이 확인되나 女眞의 신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목이나 신화의 내용을 보아 주인공은 女眞임이 분명하고 흑룡을 다스리고 흑룡강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女眞은 수신으로 정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女眞定水〉에서도 백두산의 천지수 유래담이 삽입되어 있는데 한민족 사이에서 전승되는 천지수의 유래담과는 차이를 보인다. 〈天池〉에서는 백장수가 삼으로 한 삼씩 파서 던진 흑무더기가 백두산의 열여섯 기봉이 되고 이때 파낸 곳에 물이 솟아 천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女眞定水〉에서는 완달이 백룡을 제압하고 빼앗은 화홍색의 보주를 던지자 화염이 일어나며 백두산 꼭대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홍수가 일어났으며 이 물이 고여서 천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지수의 근원이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다.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한 것은 물의 근원을 땅에 둔 것이고 눈이 녹아서 고인 물이라고 한 것은 물의 근원을 하늘에 둔 것이다. 물은 대체로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만주족 신화에서 국모신이 천상적존재로 나타난다는 점과 천지수의 근원을 천상으로 설정한 것은 같은 신성관념의 산물이라고 보며 한국의 국조신화에서 국모신이 지신이나 수신으로 설정된 것과 천지수의 근원을 땅으로 설정한 것 역시 동일한 신성관념의 산물이라고 본다.

〈참고〉

줄고, 백두산과 민족신화(정태호 외, 백두산설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한국신화와 만주족신화의 비교연구(고전문학연구 7집, 1992)